

“분대장 책임 강화·생활관 문화 바뀌어야”

육군 22사단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 개최 ... 병영문화 환골탈태의 장 마련

육군 제 22보병사단은 지난 25일 사단 재훈관에서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참모, 장병, 부모님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병 부모와 재향군인회, 율곡전우회 등 80여명의 외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병대 사고를 통해 드러난 강제적·피동적인 병영문화를 인정과 칭찬의 병영문화, 자율적이면서 자발적인 선진병영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차적으로 8월초부터 소대에서 연대까지 상향식(Bottom-up)으로 2단계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병영생활 저변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병영부조리와 불필요한 권위주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수렴했다.

1차 토론회 때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조기 정착 시키기 위해 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2차 토론회는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의식개혁 및 공감대 형성’ 등 7개 주제에 대해 장병 부모와 장교, 부사관, 병사 등 각 계급별 패널 12명이 참가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의 주제는 △생산적 군복무를 위한 자기개발여건 보장 △긍정적,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선진 리더십 실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의식개혁 및 공감대 형성 △균형잡힌 리더십 발휘를 통한 효율적인 부대운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병영관리 종합시스템 정착 △병영생활 행동강령 조기 정착 및 군기강 확립 △불합리한 관행, 악습, 병영부조리 척결 등이다.

참석자들은 간부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병사들과 부대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심에는 실질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중대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25일 22사단 재훈관에서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또 분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그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부모 대표 패널로 참가한 박근호씨(50세)는 “분대장에 대한 실질적 리더십 교육 강화를 통해 생활관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제시했다. 참석 부모 중 한 명은 “언어순화와 대화 및 소통이 새로운 문화정착의 첫 걸음이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식 상병(23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밝고 활기찬 병영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분대장인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것을 느꼈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단은 이날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9월 초 예정된 군단 병영문화 혁신 토론회 때 상급부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불법 수상레저 행위 크게 증가

속초해경 집계 총 29건(207%) ... 레저활동자 급격 증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울여름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할 해수면과 내수면의 각종 불법 수상레저행위는 총 29건(해수면 22건, 내수면 7건)으로 지난해 동기 14건(해수면 13건, 내수면 1건)에 비해 207% 증가했다.

불법행위 종류별로는 해수면의 경우 무면허 조종행위, 무등록 사업행위, 영업구역 위반행위, 정원 초과 행위가 각각 1건, 운항규칙 미준수 행위 4건,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가 14건으로 나타났다. 내수면의 경우 무등록사업 1건, 변경미등록 6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 대비 불법 레저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

은 바다에서 레저활동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울여름 잦은 우기로 계곡물이 많아 레프팅이 성행함에 따라 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안전 부주의와 관련된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광호 기자

간성의용소방대 경로당 성금 전달



속초소방서 소속 간성의용소방대원 4명은 지난 21일 간성을 신안리 통합 경로당을 방문해 성금 20만원을 전달했다.

간성의용소방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성금을 전달한지 올해로 3년을 맞이한 함동호 대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어르신 건강체크·한방진료

노인복지회관 ‘사랑실천 의료봉사’ 개최



고성군노인복지회관은 지난 26일 강릉아산병원과 함께 ‘사랑실천 의료봉사’를 개최했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관장 최중협)은 지난 26일 강릉아산병원과 함께 ‘사랑실천 의료봉사’를 열고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및 치과 협압, 당뇨 등 기초건강 체크와 한방진료 등을 진료했다.

2011년 강원도노인복지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에는 고성군과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해 보병 22사단 의료지원팀, 참빛동아리 등 민관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또 이·미용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청결한 외모관을 위해 커트, 파마, 염색 등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봉사에 참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보기를 무료로 증명했다.

한편 지난달 5월 24일 아야진에서 사랑실천 의료봉사를 실시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 1회 더 개최할 예정이다. 박승근 기자